

오늘

랭킹뉴스

이슈픽

정치

경제

LG 생활건강

**엘지력키페스타**

10.7 - 10.13 최대 70%



# 이명호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 "국제금융중심지 부산 향해 박차...해양금융 특화 힘쓸 것" [특별 인터뷰]

파이낸셜뉴스 2024.10.09 19:03

댓글 0

해양금융 중심지 기능 강화 시급  
 해운·항만·물류산업 강점 바탕으로  
 친환경 대전환기 수요 연구 필요  
 부산 금융경쟁력 '세계 20위권'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함께  
 市 차원 적극적인 투자 뒷따라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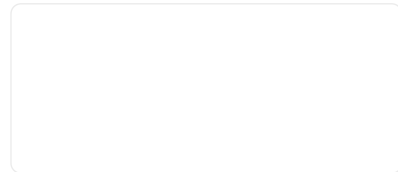


이명호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제공

"부산이 국제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계 1위 조선과 해운항만·물류산업 강점을 앞세운 '해양(선박)금융'을 보다 특화시켜 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명호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은 오는 21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제11회 부산글로벌금융포럼'을 앞두고 'First-Class 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특별인터뷰를 통해 "디지털금융, 해양금융(선박금융)과 같은 부산만의 차별화된 생태계를 육성,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의 표정은 밝고,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느껴졌다. 그가 취임한 후 글로벌 금융중심지 부산의 국제금융도시지수 순위가 눈에 띄게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디지털거래소 설립, 금융기회발전특구 지정,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 추진 등 여러 괄목할 만한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다음은 김 원장과의 일문일답.

썬 커뮤니티에서 이 기사의 반...



DB손해보험 운전자보험 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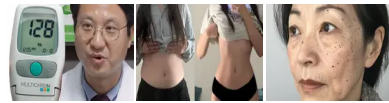
### 경제 랭킹

- 1 한은, 기준금리 3.5→3.25% 인하...3년2개월
- 2 노벨문학상 한강, 상금 13억원은 '비과세 기
- 3 한은 실기론에...이창용 총재 "내년에 평가리
- 4 기준금리 3년2개월 만에 인하..."대출문턱 (
- 5 집값 또 폭락하나?...2023년 닳아가는 '2024

### 포토 뉴스



한강 노벨상 수상에 연세...



당뇨 걱정 하지 유럽에서 핫한 이렇게 심했던 마세요. 당뇨... 15일 다이어... 잡티 기미도 [K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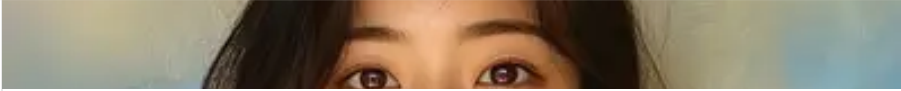
### 공감많은 뉴스

- | 시사                            | 공감별   |
|-------------------------------|-------|
| 1 이별 통보한 여성의 8살 아들 살해...성폭... | 1,033 |
| 2 필리핀 정부 "한국서 이탈한 가사관리사, ...  | 659   |
| 3 한강 "정말 놀랍고 영광...작가들의 노력과... | 587   |

당신을 위한 추천뉴스



'금리인하' 내수 불쏘시개 될까... "한발 늦었다" 실기론도 연합뉴스



맘카페에서 난리난 '팔자주름' 개선 꿀팁

—지난해 8월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소회는.

▲부산을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육성해 나가는 업무가 파도치는 바다에서 저 멀리 있는 등대를 향해 헤엄쳐 건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등대가 눈앞이지만 가도가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다. 지난 1년간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할 일도 많다. 취임 초에 가졌던 결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스스로 다잡고 있다. 부산 현실에 대한 위기의식과 금융중심지 육성의 절박감을 갖고 바쁘게 뛰고 있다.

—올해로 부산이 정부로부터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은 지 15년째를 맞았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보다 조선산업과 해운·항만·물류 강점을 바탕으로 해양금융 중심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패를 경험한 민간 금융기관의 이탈이 지속되면서 정부나 공공기관을 통한 정책금융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이는 선박금융 전체 규모의 축소, 선박금융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산 대표 해양금융상품과 정책 지원책을 마련해 보완하고, 선박금융 전문인력을 키워야 한다고 본다. 현재 해운산업은 국제해사기구(IMO)의 넷제로(Net-Zero) 규제로 인해 친환경으로 전환이라는 격변기를 맞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해양금융 중심지 역할을 강화할 기회이기도 하다. 부산에서 친환경 대전환기 대응을 위한 해양금융 수요 증가를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적절한 금융 마중물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더해 나간다면 부산은 글로벌 금융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부산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올해 상반기 27위에 이어 하반기 세계 121개국 중 25위에 올라 20위권에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금융중심지 부산 발전을 위해 쏟은 그동안의 노력이 반영된 것 같아 기쁘다.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와 D-valley 조성,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발의 등 다양한 시책이 주효했던 것 같다. 부산이 암스테르담, 시드니, 에든버러, 아부다비, 마이애미, 함부르크 같은 주요 도시들을 앞질렀다는 것이 자랑스럽기는 하지만 순위 등락에 연연하지 않으려 한다. 도시의 평판과 브랜딩은 금융중심지 경쟁력에 매우 중요하다. 사업, 투자, 일을 어느 도시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부산의 장점과 강점을 더 부각시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선도적 금융중심지로서 도시 위상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한국거래소 등 주요 이전 금융기관과 공기업이 출자해 운영 중이다. 서울시에 비해 부산시의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배정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은 2021년 '아시아 금융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30년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지금의 약 3배인 300억달러로 늘리고, 서울 소재 외국계 금융기관을 100개사 추가 유치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5년간 약 2418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2년 서울투자청 설립, 2023년 제2서울핀테크랩 개관 등을 빠르게 실행하고 있다. 부산도 기회발전특구나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추진 등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의 자체 예산 투입 같은 제한적인 부분은 아쉽다. 부산도 미래 먹거리를 금

다 '금지'..."노벨상' ...

392



Q 오늘의 인기 검색어 coupang

1	인테리어	-	2	건강식품	-
3	캠핑	↑	4	차량용품	↓
5	낚시	↑	6	스마트홈	↓
7	뷰티	-	8	골프	-

댓글많은 뉴스

- 1 '홍명보가 해냈다!' 한국, 이재성·오현규 연:
- 2 이별 통보한 여성의 8살 아들 살해...성폭행
- 3 '노벨상' 한강 책 폐기됐다...경기교육청 '유:
- 4 '임시 주장' 김민재의 일침, "홍명보 감독 향
- 5 필리핀 정부 "한국서 이탈한 가사관리사, 고



인기많은 썰

음지에서 일한건 솔직히 사실이잖아요.... 미성저 여자분은 꼭 정신과 치료 받아야함 정신정 결혼은 전남편이 밀어붙여서 한거임 구혜선은 한강 작가의 작품 "채식주의자"는 2023년 경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작성했던 관련 기사



특커들의 선택

- 1 지방사람이 서울오면 적응 못하는 것 (180)  
조회 89,677 | 추천 178
- 2 어버이날 시누이가 아이 죽인사건 결과... (6)  
조회 153,314 | 추천 683
- 3 라이즈 승한 복귀한단다 (317)  
조회 31,262 | 추천 150



**DB손해보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최대 3만원 혜택!  
30만원 이상 카드 결제 시 주유권 1개 시백  
손해보험협회 승인업 제122056호 (2024.05.17~2025.05.15)

가 가 가 맨위로

당신을 위한 추천뉴스



'금리인하' 내수 불쏘시개 될까... "한발 늦었다" 실기론도  
연합뉴스

를 열어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켰는데.

▲부산문화회관, KNN 방송교향악단과 협력해 7월 25일부터 9월 24일까지 현악 4중주, 금관 5중주, 목관 5중주 등 실내악과 국악 등 작은 음악회를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에 BIFC 1층에서 11차례 개최했다. 뉴욕, 런던, 도쿄 등 세계 주요 금융도시들이 문화와 예술을 금융중심지의 경쟁력과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전략적 요소로 활용하는 추세를 감안, 부산 금융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기획했다. BIFC 입주 금융기관 임직원의 반응이 기대 이상으로 뜨거워 놀랐다. 이 음악회가 금융인들의 문화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줬다고 보고 내년에도 음악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더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싶은 것은.

▲부산은 울산-경남 등 동남권에 세계 1위 조선산업과 부산항을 갖고 있어 해양금융, 선박금융을 육성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금융분야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부산의 장점을 활용할 해양금융 상품이나 제도, 정책 뒷받침도 충분치 못하다. 그래서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내에 선박금융 전문가를 영입하고, 최근 '해양금융센터'도 신설했다. 앞으로 해양금융센터를 심분 활용할 생각이다. 유럽 등 해양 선진국의 해양금융 정책이나 인센티브를 벤치마킹해 부산에 접목시키고, 해양금융과 해운시장 내 민간 금융회사의 참여 폭을 확대할 방안도 적극 찾아낼 것이다.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금융종합센터, BNK 부산은행, 한국해양대학교 등과 유기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부산의 해양금융 시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이명호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은

서울대 법학과 경제학을 동시에 전공하고 컬럼비아로스쿨을 졸업한 후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경남 거창 출생인 이 원장은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구조개선정책관 등의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외교부 소속 주영국 한국대사관 참사관, 주인도네시아 공사 겸 총영사 등을 거쳤으며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을 지냈다.

■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부산을 국제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2020년 설립한 민관 협력 형태 사단법인이다. 부산시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산은행, 기술보증기금 등 7개 금융 관계기관이 사원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 핫뉴스]

→

담배 끊었다는 김희애, 뜻밖의 고백 "전자담배는..."

5개



couponang 로켓배송 상품, 오늘주문! 내일도착!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운전자보험	11번가	AXA손해보험